

한국과 유럽의 시초 축적 과정에 대한 비교

20140645 컴퓨터공학과 서진영

서론

자본주의에 있어 자본이란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본의 축적을 통한 부의 실현이 자본주의 사회 아래 자본가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가는 자본을 통해 타인을 고용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윤을 통해 점점 더 큰 재산을 가지고자 한다. 유럽 경제의 역사에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자본의 양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이론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등에서 주장한 노동자의 발생과 여기에서 파생된 계급적 착취 구조로 인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여성 또는 식민지 토착민들의 착취와 배제 과정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세계 열강들에 의해 자본주의를 이식 당한 경우이다. 특히, 한국을 직접적으로 식민 지배한 일본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자본을 수탈해 자신들의 자본을 불렸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상태였으며, 자신들이 서구 열강을 보고 배운 방식을 응용해 한국의 자본을 착취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자본을 수탈할 때 사용한 방법을 시초 축적 방식의 이론과 비교해 알아보려고 한다.

시초 축적 방식의 이론

근면한 개미론

정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근면한 개미'론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이 나뉘게 된 과정을 이른바 '원죄'에 가까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치 <개미와 베짚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와 같은 사람과 자신이 가진 재화를 모두 탕진하며 노는 베짚이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개미'는 자신이 일해 번 돈을 꾸준히 저축했으며, 이 돈이 조금씩 모여 결국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베짚이'는 자신이 번 돈을 저축하지 않고 모두 써버리다 보니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개미'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노동자에게 '오랜 옛날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지 않았다'는

원죄를 씻우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이론에 대해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얘기하며, 시초 축적의 방식은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로부터 생존 및 생산 수단을 빼앗고 이들을 착취함으로써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미'들이 부지런하게 일한 것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었다.¹

마르크스 주의적 해석 방식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의 시작을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리는 토지 약탈 과정으로 본다. '엔클로저 운동'은 크게 두 번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16세기에 영국의 양모 가격이 급등해 공유지와 경작지를 목양지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18세기에 대지주들을 중심으로 대형 토지에 곡물이나 가축을 대량으로 기르기 위한 과정이었다. 엔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공유지와 경작지를 사용하던 영세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영세 농민들은 자신의 땅 혹은 부농에게 빌린 소작지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물과 약간의 잉여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엔클로저 운동 이후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남은 것은 노동력 뿐인 농민들의 일부는 도시에서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으며, 노동력의 상품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농민들은 부랑자 또는 실업자가 되어 도시를 배회했다.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은 대대적으로 빈민에 대한 폭력적인 제재와 감금을 시도하고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임금 노동의 제도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켰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는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 또는 공유지에서 스스로 생활 수단과 원료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그 대부분을 스스로 소비하고 일부만을 작은 시장에서 교환의 형식으로 내다 팔았다. 하지만 공유지와 토지를 빼앗김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고 구매하도록 강제되었으며, 이를 구매할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 시장이 창출된 것이다.²

이제 자본가는 엔클로저 운동으로 빼앗은 생산수단과 토지로부터 분리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할 시장도 확보했다. 이

¹ 이진경. 자본을 넘어선 자본. 2004

² 이진경. 자본을 넘어선 자본. 2004

때, 자본가가 노동자를 하루 동안 고용한다는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임금으로 주고 그 노동력을 하루 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데, 실제로 생산한 가치에 비해 적은 양을 임금으로 돌려받는다. 생산된 노동 가치 중 노동자에게 돌아간 임금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가치가 자본가가 얻는 이윤이 되는 것이다.³

여성의 착취와 배제를 통한 축적

실비아 페데리치는 <캘리번과 마녀>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의 자본 축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시초 축적 이론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마녀사냥’ 이론이라고 지칭할 이 이론은 16~17세기에 등장한 인구 위기와 경제위기로부터 시작한다. 16세기 중엽부터 인구의 증가가 곧 국부의 증가라는 주장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인구 증가에 대한 옹호로 이어졌다. 국가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의 신체와 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파괴하고 빼앗아 오고자 했으며, 마녀사냥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여성은 새로운 노동력을 생산하는 재생산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전에는 동등한 노동으로 인정받았던 여성 노동과 가사 노동은 평가절하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여성은 대지주와 부농에게 빼앗긴 토지와 공유지 대신 새로운 공유재산으로 여겨졌다. 남성은 여성의 노동력과 그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성 노동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대체로 이 착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마녀사냥은 지배계급에 의해 필요한 대로 이용되었다. 마녀사냥 초기에는 토지 수탈의 주체가 된 지배계급이 여성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 ‘사바트’라 불리는 마녀들의 집회가 있다는 것을 핑계로 여성들을 억압했다. ‘사바트’가 자본주의 노동 시간을 벗어난 야밤에 이루어진다는 점, ‘사바트’의 주요 대화 주제가 계급 반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사바트’에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 등이 지배 계급이 여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모인다고 의심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마녀사냥은 여성의 신체와 재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여성, 특히 산파와 임신부 사이의 연대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마녀로 공격당한 이들은 여성들이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을 알고 있거나 사용한 사람들이었고, 통제에서 벗어난 섹슈얼리티를 행사한 경우, ‘여성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반항적인 경우도 모두 마녀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마녀사냥은 토지를

³ 김수행. 자본론 공부. 2014

빼앗긴 하층 계급에 대한 통제 수단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마녀사냥의 효율성을 깨달은 지배계급은 식민지의 사회를 통제하는 데에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들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존재나 이교도로 몰아 선교와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여성과 아이를 공격해 유럽의 것과 흡사한 가부장적 관계로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의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고 지배했다. 특히, 마녀사냥에서 사용한 것과 흡사한 방식의 이교적인 의식과 마법에 대한 묘사는 지배계급이 유럽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논리로 식민지를 착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

근면한 개미론을 제외한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특정 계급-노동자, 여성 또는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폭력적인 배제를 이용해 자본가 및 지배계급이 자본을 축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있어 폭력과 배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으며, 그 결과 현대까지도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과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시초 축적

위의 여러 가지 이론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과정과 유럽 강국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식민지를 수탈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이다. 때문에 이 이론을 그대로 한국의 시초 축적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식민지로 수탈당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적용한 방법에 있어 위의 이론과 흡사한 부분이 존재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이용한 토지 수탈

유럽 자본 축적의 시작이 공유지와 토지를 빼앗는 '엔클로저 운동'이었던 것처럼, 일제의 식민 수탈도 한국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1908년 한일 양국의 '협동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는 토지 확보 및 이를 이용한 이민 사업을 통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동척에서 착수한 토지 취득의 목적은 왕실의 사유지였던 궁장토를 일본 종속 하의 한국 정부로 옮겨 왕실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는 동시에 소작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동척은 본격적으로 토

⁴ Silvia Federici. *캘리번과 마녀*. 2011

지 수탈을 시작하며 한국인 소작농을 몰아내고 일본인을 이민 시켜 농촌 지배를 위한 중추로 삼으려 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토지의 20%를 취득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한국 농민의 치열한 저항과 일제의 예상을 넘는 반일 감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 사업에 실패한 동척은 방향을 바꿔 지주의 위치에서 소작료를 증가시켜 소작농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했다. 특히, 경영 상태가 악화될 때에는 소작농 수탈을 강화해 소작료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했다.⁵

토지 수탈을 위한 동척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주지와 공유지의 국유화이다. 동척은 토지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 토지 원주자가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할 경우 무주지로 간주해 국유화했으며, 공전, 농민 공유지, 삼림 등의 공유지 또한 국유지로 편입했다.⁶ 동척의 이러한 정책은 유럽의 '엔클로저 운동'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생활 수단 중 하나였던 공유지를 빼앗은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 수단을 잃은 농민들이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되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인에 대한 타자화

유럽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야만적이고 이교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계몽과 선교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과 비슷하게,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당시 일본인이 조선을 여행하며 작성한 여러 여행기에도 조선인에 대한 멸시의 시선과 조선을 문명화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드러나 있다. 개항기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여행기인 혼마 규스케의 <조선잡기>에서는 한국의 풍습과 일상생활을 상세하게 서술하며 일본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다. 혼마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은 자주성을 결여한 나라이며 관리는 부패해 있고, 경제발전이 늦으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선인은 게으르고 무사태평하며 비굴하고 가련한, 문명화되지 않아 불결하고 예술적이지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 특히 한국인의 불결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문명과 야만의 대비에 있어 위생과 불결만큼 두드러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마는 서양인들이 동양보다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 이용했던 오리엔탈리즘의 논리를 똑같이 차용해 한국을 타자화한 것이다. 혼마는 이처럼 야만적이고 가련한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러일전쟁 이후 조선

⁵ 이규수. 식민지 지배의 침병, 동양척식주식회사. 2008.

⁶ 최재성. 이어성의 1930년대 초 농업문제 인식. 2017

에 대한 개발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

일본 내에 퍼진 이런 인식은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자본 및 노동력을 수탈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당시 일본인에게 있어 조선 식민 수탈은 부당한 일이 아닌, 조선을 문명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으로 포장된 것이다. 이렇게 착취한 자본은 자연스럽게 일본과 일본의 수탈에 가담한 친일 자본가들에게 축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식민 지배 전후로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혼마가 여행기를 작성한 청일전쟁 시기만 해도 조선 내에서 청나라 상인이 일본인 상인보다 대접받고 있었으며, 오히려 일본인 상인들이 조선인에게 경멸 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식민 지배 이후 일본의 '제국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에게 중국은 병적(病敵), 즉 비위생적이고 불건강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조선잡기>에서 혼마가 조선을 불결하고 비문명화된 곳으로 묘사한 것처럼,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 신문의 광고에서 중국은 멸칭인 '지나'라고 불리며 해충이 들끓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같은 식민지 내에서라도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조선인들의 욕망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다.⁸

이처럼 일본은 당시의 조선을 타자화하고 야만적인 민족으로 그려내며 자신들이 조선을 수탈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한반도를 식민 지배 하는 동안에는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타자화해 조선인의 혐오 대상을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이 유럽의 시초 축적 과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일제 식민하의 한국의 시초 축적 과정에 있어 유럽의 시초 축적 이론과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마르크스의 '엔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노동자가 생산 수단인 토지와 공유지로부터 분리되어 잉여가치를 생산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주장과 흡사하게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해 토지와 공유지를 수탈당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이 생산 수단을 잃고 노동 계급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실비아 페데리치가 <캘리번의 마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야만적이고 불결한 존재로 타자화되어 계몽의 명목 아래 문화와 자본을 수탈당했으며,

⁷ 김대래, 박희정, 미야키 케이나.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 2014

⁸ 권창규. 상품의 시대: 출세·교양·건강·섹스·애국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 소비 사회의 기원. 2014

일본 지배 계급에 대한 반감을 돌리기 위해 같은 식민 국가 안에서도 중국을 타자화해 혐오하도록 선동되었다. 이처럼 유럽과 한국의 자본 시초 축적 과정에 있어 유사성이 나타나지만, 유럽의 경우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있어 자본가-노동자 계급이나 남녀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자본을 축적했으며 나아가 식민지를 수탈한 반면, 한국은 식민지의 입장에서 일본에 의해 철저히 자본을 수탈당하고 계급의 분화를 강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자본의 시초 축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축적된 자본이 이후 한국에서 어떻게 재생산 및 재축적 되었는지 조사한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와 의의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창규. *상품의 시대: 출세·교양·건강·섹스·애국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 소비사회의 기원*. 서울: 민음사, 2014. Print.

김대래, 박희정, 미야키 케이나.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 *역사와 경계*,93(),65-99. 2014.

김수행. *자본론 공부: 김수행 교수가 들려주는 자본 이야기*. 파주: 돌베개, 2014. Print.

이규수. *식민지 지배의 침병*, 동양척식주식회사. *내일을 여는 역사*,(34),211-218. 2008.

이진경. *자본을 넘어선 자본*. 서울: 그린비, 2004. 인쇄물.

최재성. *이여성의 1930년대 초 농업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57(),209-243. 2017.

Silvia Federici.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 김민철 옮김)*. 서울:갈무리, 2011. Print.